

# 1 이야깃거리

캐나다 앨버타주(州)

## 100% 남성이 여성이 된 이유

**데이비드**

얼마라고요? 일년에 4,517달러라고요? 흠... 생각보다 비싸네.

**자동차보험사직원**

보통 여성분들에 비해 남성분들은 사고를 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서 남성분들의 보험료는 여성에 비해 5% 정도 높은 편입니다.

**데이비드**

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남성들이 운전을 훨씬 잘하는 데... 말이 안 돼요!

**자동차보험사직원**

같은 남자로서 저도 안타깝지만, 그게 북미지역 보험회사의 기준입니다.

**차**를 사러 간 23세 청년 데이비드는 높은 보험료에 몹시 기분이 나빴다. 비록 한 번의 접촉사고와 여러 번의 딱지를 떼이기는 했지만, 연간 4,500달러가 넘는 차량 보험료는 너무 비쌌기 때문이다. 게다가 여성들은 더 낮은 차량 보험료를 낸다는 사실이 그를 더욱 기분 나쁘게 만들었다.

데이비드는 얼마 전에 본 한 북미 데이터에서 여성 보단 남성이 치명적인 차 사고로 목숨을 잃는 일이 더 많다는 사실을 보았고, 경험상 그 사실을 부인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짜증이 났다. 이런저런 궁리를 하던 데이비드. 갑자기 그의 머리를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있었다.

“만약...내가 여성이 된다면? 내가 합법적으로 여성이 된다면 보험회사 직원 말처럼 낮은 보험료를 낼 수 있을 텐데..?” 데이비드는 직원에게 자동차 보험 신청서에 그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어 달라고 했다.

**데이비드**

그럼 나의 성별을 여성으로 바꾸어 써주세요. 자동차 보험 신청서에 그렇게 쓰면 되잖아요.

**자동차보험사직원**

네?? 뭐라고요? 안됩니다. 그건 불법입니다.

**데이비드**

흠.. 그럼 적법하도록 만들면 되겠네요.

거절당한 데이비드는 아직도 높은 보험료를 내는 것이 너무 억울했기 때문에 곧바로 탈법적인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그는 바로 의사에게 달려갔다.

**데이비드** 의사 선생님, 저는 여성으로 인정받기 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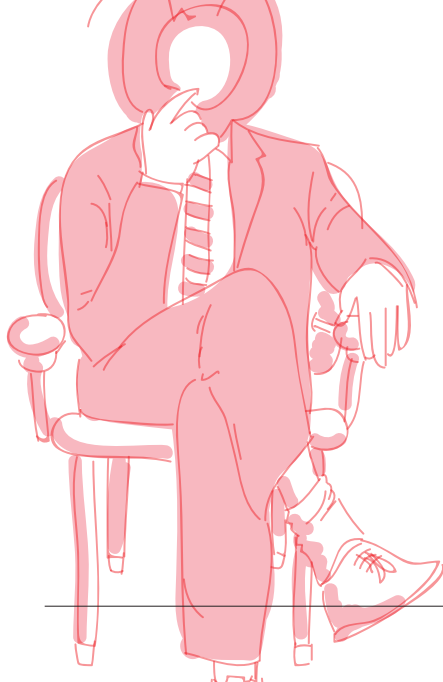
**의사** 데이비드씨의 성 정체성을 바꾸기 원하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데이비드씨는 ‘여성’이 되기로 결정했습니다.

**데이비드**는 3년 전 성별을 바꾸는 일이 훨씬 수월해진다는 기사를 읽었던 적이 있어서 그 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예전에는 성전환수술 증명서가 있어야 성별전환신청을 할 수 있었던 반면, 이제는 그런 수술이 아예 필요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데이비드가 아주 쉽게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는 자신이 원한다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아주 쉽게 바꿀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렇게 그는 **멸절 100% 남성**이면서 **법적으로는 여성**이 되었다. 몇 주 뒤, 자신의 성별이 여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새로운 출생증명서와 운전면허증을 받아 든 데이비드는 자동차 보험회사에 여성으로 등록하여 월 약 91 달러의 보험료를 아낄 수 있었다.

**데이비드** 보험제도도 별거 아니네? 내가 이겼다!

\*\* 본 이야기는 캐나다 앨버타 주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재구성하여 쓴 글입니다. 보험사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데이비드라는 가명을 사용하여 언론 인터뷰에 응한 23세 캐나다 남성의 실제 사건이며, 현재 법적으로는 여성으로 살아가면서 낮은 차량보험의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금강한 캐나다 앨버타 주의 성별정정의 배경 이야기~

지난 2014년 4월 22일 앨버타 고등법원(Court of Queen's Bench of Alberta)의 브라이언 버로우 재판관은 성별정정을 위해서는 성전환수술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는 인구통계통계법(Vital Statistics Act, RSA 2000, 추후 Vital Statistics Act, SA 2007로 인해 폐지 됨.)이 트랜스젠더들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후, 2015년 2월 20일, 인구통계통계정보수정규칙(Vital Statistics Information Amendment Regulation, VSI)에는 성전환수술을 성별정정 필수요구 조건으로 한다는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술서와 전문 의료진의 의견서 또한 각각 두 장에서 한 장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누구든 성별정정을 원할 때 성전환수술을 하였음을 밝힐 필요 없이 간단하게 성별정정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018년 6월7일에는 VSI가 수정이 되면서 의학을 전공한 전문인을 뜻하는 “전문 의료진” 이란 단어를 빠지고, 간호사나 사회 복지사 등도 포함하는 “전문가” 라는 단어로 교체되었습니다. 성별 정정이 더욱 수월해진 것입니다.

캐나다는 성평등(Gender Equality) 정책을 매우 적극적으로 시행 시킨 나라 중 하나입니다. 남성, 여성의 평등을 넘어 동성애자와 성소수자의 권리도 오래 전부터 보장해왔습니다. 그 결과, 성소수자의 인권 보장이라는 명목하에 성별정정 신청요건의 기준도 갈수록 완화되어 온 것입니다. 성별을 바꾸는 것이 이토록 쉽다면, 누구든 상황에 따라 여성이 되었다가 남성이 되는 매우 편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별이란 과연 자신이 원하는 때와 장소에 따라 마음대로 왔다갔다 바꿀 수 있는 것일까요? 성별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염색체, 생식기일까요? 아니면 자신이 스스로 결정하면 되는 것일까요?

